

오순절 후 열일곱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7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9월 1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양 Praise	“보혈을 지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살아계신 주”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Mark) 2:1-12	배성룡 집사
찬 양 Anthem	“오직 성령아”	찬양대
설 교 Sermon	“교 회” (The Church)	허봉기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보혈을 지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33 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통일 49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허봉기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진실되지 못한 말과

죄악된 행동을 여과없이 드러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다시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 27, 고전 3:16,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막 25)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Mark 2: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5 (주일)	9/16 (월)	9/17 (화)	9/18 (수)	9/19 (목)	9/20 (금)	9/21 (토)
본문	삼하12 고후5 겔19 시64	삼하13 고전6 겔20 시66,67	삼하14 고후7 겔21 시68	삼하15 고후8 겔22 시69	삼하16 고후9 겔23 시70,71	삼하17 고후10 겔24 시72	삼하18 고후11 겔25 시7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18수 오후7:30)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요17:6-19)
토요 새벽기도회(9/21토 오전6:30)	“세상으로 알게하러 함이로소이다” (요17:20-26)

지난 주일 (9/8) 말씀

“에바다 (Ephphatah)” (막 7:24-37)

오늘 본문(막7:24-37)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막7:24-30)과 2)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막7:31-37) 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는 평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평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여과 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20-23)고 말씀하시고 나서, (과연)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다” 즉 “열리고 풀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든 모든 막힘과 단절과 분리를 가져오는 악한 생각과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